

10월 광주는 축제다

車 없는 금남로 '상상페스티벌'
시민·청소년 화합의 마당

영산강 역사문화제
힐링콘서트·전국 자전거 대회

양림문화예술축제
역사+인물+공간+콘텐츠

7080 총장축제
거리행진·아시안 팜 페스티벌

광주세계김치축제
미술관과 음악회 등 다채

광주세계김치축제
미술관과 음악회 등 다채

■ 10월 광주 문화예술축제 일정

일정	행사	장소
2~4일	광산구민의 날 광산우리밀 축제	송사유원지 특설무대
3~31일	역사생태문화제	국립교·송천 보
3일	상상페스티벌	금남로 차없는 거리
7~11일	제12회 7080 총장축제	충장로·금남로 예술의 거리 등
16~18일	양림문화예술축제	양림동, 사직공원 일원
24~28일	광주세계김치축제	광주 김치타운

광주 도심이 10월 한 달간 축제의 장(場)의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분 개관과 함께 광주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 등이 펼쳐지면서 시민들의 문화갈증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3일 역사문화제를 시작으로 총장축제와 양림문화예술축제, 김치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이어진다. 역사생태문화제는 이달말까지 진행되며, 국립교에서 승천보까지 12km에 달하는 영산강 길을 따라 피어난 역사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힐링 콘서트(라디오 공개방송), 역사꽃밭 걷기 대회, 자전거 전국대회, 포도존, 정화활동,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광주 관광사진전 등이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게 된다.

3일 금남로 일대 차없는 거리에서는 3000여명의 시민과 청소년이 참여해 한바탕 축제를 펼치는 '상상페스티벌'이 열린다.

이어 7일부터 11일까지는 '추억&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뒤를 잇는다. 5일간 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등에서 거리퍼레이드, 추억의 테마거리, 아시안 팜 페스티벌 등이 선보인다.

또 16~18일 양림동과 사직공원 일원에서는 양림문화예술축제가 펼쳐진다. 남구 출신 역사문화 인물들의 삶과 양림동에 산재한 근대 문화유적지의 가치 재조명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특히 '역사+인물+공

간+콘텐츠'를 결합한 인문학적 축제를 선보인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광주세계김치축제는 24~28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다. 기존 체험과 즐길거리에 산업행사를 접목시켜 전시, 경연, 마케팅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 이밖에도 2~4일 송사유원지 특설 무대에서는 광산구민의 날 및 광산우리밀 축제가 열리며, 광주시립미술관은 4일 오후 4시 미술관 로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가을음악회'를 연다.

또 광주문화예술회관은 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합창과 교향악, 뮤지컬 등으로 구성된 '시월의 어느 멋진 날 에'란 공연을 선보인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해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11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 참가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등산 정상 3일 개방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군부대와 협의해 오는 3일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무등산 정상은 폐쇄된 지 45년 만인 2011년 5월 첫 개방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등산객의 발길이 닿았다. 정상은 맑은 등산객만 28만여명에 달한다.

올해는 5월 2일 개방 뒤 9월 개방 계획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취소됐다. 10월 개방구간은 정상 군부대 내 지양봉과 인왕봉 주변이다. 서석대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영내에서 정문으로 나가는 0.9km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광주시는 개방 당일 시내버스를 증편하고, 임시 주차장 등 대책을 마련했다. 무등산국립공원(원효사)행 1187과 1187-1번 등은 평소보다 9대를 늘려 22대가 모두 221차례 운행한다. 증심사 방면은 8개 노선 120대가 1천302차례 오간다. 종장사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한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도시공원 일몰제' 전남 134곳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

장흥군립공원 50년만에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전남도 내 도시공원 가운데 134곳(7.0km)에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남약신도시(6.3km)보다 0.7km 큰 규모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1일 이전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10년 넘게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공원은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10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지난 수십년 간 공원 부지로 묶여 건물 신축 등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받아왔던 사유지에 대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전남도내에는 그동안 도시공원 시설로 총 1524곳(73.4km)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45.7%인 697곳(27.2km)만 도시공원 조성 이 완료됐고, 54.3%인 827곳(46.2km)은 조

성되지 않았다. 미조성 827곳 중 693곳(83.8%)은 일부 조성이 됐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나머지 134곳(7.0km)은 조성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조성계획이 없는 도시공원 134곳이 이번 '일몰제'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12만 4000㎡, 계획관리지역 3만7000㎡, 자연환경보존지역 680만㎡ 등이다.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에서는 앞으로 용도지역의 건축기준에 맞는 건물 등 시설 신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거래도 가능해진다.

시·군별로는 장성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나주 21곳, 강진 16곳, 무안 15곳, 장흥 13곳 등의 순이다. 실외 대상공원 중 장흥군립공원과 장흥중앙근린공원의 경우 지난 1968년 5월에 지정돼 50여년 가까이 개발이 제한됐었다.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

제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더라도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공원은 물론, 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일몰제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해제 이후 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최현일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현웅 법무장관 내일 광주 방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일 광주를 방문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를 찾아 광주오거리와 광주지검을 지도 점검하고, 오후에는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에 참석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노동·공공·금융 비효율성 한국 경쟁력 값아 먹는다

국가경쟁력 2년째 26위
금융시장 성숙도 87위
고용·해고관행 115위
인프라·시장규모 10위권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가운데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값아먹는 것으로 지적됐다.

WEF가 매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로 올라선 이후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2013년부터는 25~26위에 머물러 있다.

분야별로는 3대 항목 가운데 거시경제·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 순위가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올랐으나 평가비중이 50%로 높은 '효율성 증진' 순위는 25위로 변동이 없었다. '기업혁신' 분야도 2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를 다시 12개 하위 부분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 순위는 9위에서 7위로 올랐다. 그러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80위에서 87위로 떨어졌다. 이밖에 기술수용 적구성(25→27위), 시장 규모(11→13위), 업 혁신(17→19위) 분야에서도 뒷걸음질쳤다. 노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100) 전년도 순위

● 기본요인	18위 (20)
제도적요인	69 (82)
인프라	13 (14)
거시경제	5 (7)
보건·초등교육	23 (27)
● 효율성증진	25위 (25)
고등교육·훈련	23 (23)
상품시장 효율성	26 (33)
노동시장 효율성	83 (86)
금융시장 성숙도	87 (80)
기술수용 적구성	27 (25)
시장규모	13 (11)
● 기업혁신	22위 (22)
기업활동 성숙도	26 (27)
기업혁신	19 (17)

자료/기획재정부, 세계경제포럼(WEF) 연인뉴스

동시장 효율성은 작년보다 세 계단 올랐지만 83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5위, 정리해고 비율은 117위,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66위에 머물렀다. 국가경쟁력 평가의 세부 항목 중 설문평가 항목 80개(70%)는 해당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순위가 매겨진다. WEF는 한국의 강점으로 거시경제(5위), 시장규모(13위), 인프라(13위)를 꼽았다. 약점으로는 정부 규제 등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를 지적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원 오늘 출범...공식 개관 준비 본격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정부 책임 운영기관)의 위탁을 받아 문화전당을 운영할 아시아문화원이 1일 출범했다.

지난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원은 23일 창립이사회를 열어 이사(임시 대표 이사 최태지)를 선임한 데 이어 1일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마쳤다.

아시아문화원의 출범으로 문화전당 개관콘서트 구축공사를 맡아온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자동 해산 절차를 밟게됐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원 원장 선임이 지연돼 당분간 최태지 이사가 임시대표를 맡

게 됐다. 문화전당 측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선임위원이 선임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개채용으로 뽑힌 아시아문화원 신입직원 56명은 이번 주까지 직원 등록을 마치고 교육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5일부터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원은 경영지원실과 공연사업실, 전시사업실, 교육사업실, 장·제작센터, 아시아문화연구소로 구성된 문화전당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당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안 복합리조트 잔여부지 안착지역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매각안내

I 개요

- 매각대상지: 신안군 신안읍 안착리 205 및 208번지 2,942,506.3㎡(이하 '안착지역')
- 매각대상지: 신안군 신안읍 안착리 205 및 208번지 2,942,506.3㎡(이하 '안착지역')
- 매각대상지: 신안군 신안읍 안착리 205 및 208번지 2,942,506.3㎡(이하 '안착지역')

II 매각 진행 절차

- 서류제출 신청: 2015년 10월 15일 (목) 10시 ~ 15시 (이하 하대인공표후)
- 서류발급: 2015년 10월 15일 (목) 10시 ~ 15시 (이하 하대인공표후)
- 서류발급: 2015년 10월 15일 (목) 10시 ~ 15시 (이하 하대인공표후)

III 소유권 이전

- 매입대상지: 신안군 신안읍 안착리 205 및 208번지 2,942,506.3㎡(이하 '안착지역')
- 매입대상지: 신안군 신안읍 안착리 205 및 208번지 2,942,506.3㎡(이하 '안착지역')
- 매입대상지: 신안군 신안읍 안착리 205 및 208번지 2,942,506.3㎡(이하 '안착지역')

2015년 10월 1일
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카드, 한국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시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